

원삼국시대 전후의 제주도 문화

이 청 규 *

1. 제주도의 원삼국시대 문화

원삼국시대를 기원 0-300년으로 보고 그 문화적 특색을 청동기의 소멸과 철기의 발달 및 보급, 저화도 민폐토기 대신 높은 온도의 회색 김해토기 혹은 와질토기의 생산이라고 파악하고, 그 변화를 중국 漢문화의 유입으로 이해하였을 때, 제주도에서의 원삼국시대 문화의 존재를 가장 먼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해방전 1928년 제주시 산지항 축조공사 때 발견된 한대 화폐 일괄유물이다. 그 내용은 오수전 4매, 화천 11매, 대천 52매, 화포 1매로 그 화천의 대부분은 신의 왕망 때 주조되었다. 이밖에 산지항에서는 화폐 유물 이외에 방계경과 동계검 부속구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산지항 화폐유물은 원삼국문화의 특색의 하나로 지적된 한의 문화 유입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대 유물로 분명하게 확인된 또 다른 증거는 1984년 발굴조사된 제주시 용담동 무덤에서 출토한 유리 구슬제품이다. 이 용담동 출토 유리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국 한대의 유리와 마찬가지로 Mg가 1%미 만이고 Mn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 저화도의 민폐토기 대신 높은 온도의 회색 김해토기가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1979년 발굴된 애월읍 광지리 패총 제2지점에서이다. 이 지점에서 다량의 적갈색 토기와 함께 타날무늬의 회색토기가 비록 파편상태이나 수십점 확인되었다. 문제는 전체 토기 중에 이 타날무늬 회색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이 원삼국시대의 제주도 토기문화의 특색이다. 1989년 발굴된 광지리 패총 제5지점에서도 타날무늬 와질토기는 엄청난 양의 적갈색토기에 비해 매우 적은 파편만이 공반출토되었을 뿐이다. 한대 이후에 속하는 다량의 철제유물과 유리제품이 출토된 용담동 무덤(북쪽 묘역)에서

* 제주대학교 사학과교수

는 아예 적갈색토기만 출토되었을 뿐 1점의 김해토기 파편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삼국시대의 특징인 김해식토기 혹은 와질토기가 제주도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제주도 토기는 무문토기제작수법의 적갈색토기로, 직립구연과 내반구연의 예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두터운 태토에 입지름이 바닥지름보다 훨씬 큰 광구외반구연항아리로 기형의 전체 모양은 남한의 중도식 토기를 닮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또다른 특색인 철기문화의 발전과 보급은 앞서 용담동 유적 북쪽 묘역에서 다량 출토된 철제유물로 확인된다. 이 무덤은 적석묘역을 이룬 범위 내에 성인용의 석곽묘와 여러 소아용 독무덤이 안치된 일종의 가족묘 성격을 띤 무덤으로, 특히 석곽묘에서 장검 2점, 단검 1점, 칼형 무기 1점, 주조철부 1점, 소형철부 2점과 다량의 삼각형 화살촉이 부장되었다. 그리고 주위의 돌틈새나 교란된 부위에서도 판상철부, 철창, 철사 및 삼각형 철촉이 출토되었다. 같은 시기에 경남지방 여러 유적에서 용담동 출토품과 같은 부채꼴 모양에 장방형 소켓트, 그리고 2중돌대가 둘러진 주조철부가 합천 저포리에서 그리고 다량의 삼각촉이 남한 지방 여러 곳에 출토된 바 있어 제주도에서의 원삼국시대 철기문화는 남한 지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주도 원삼국시대 전후의 문화

한반도에서 원삼국시대 이전 단계는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00-0년)로 설정되고 있어, 철기의 현지 생산과 함께, 청동제품이 급증하고 청동기술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로 이해된다. 그리고 남한 지방에서는 세형동검문화와 함께 괴정동식 점토띠토기문화가 형성 발전하는 시기이고 그 후기에 늑도-군곡리식 점토띠 토기문화와 함께 철제유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다음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여명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경우 남한 지방의 이 시대의 문화의 편린으로 광지패총 제2지구 하층과 대정읍 상모리 패총에서 각각 1점의 점토띠 토기 구연부편이 확인되고, 구좌읍 종달리에서 세형동검 후기 형식이 1점 출토된 바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한 지방의 초기철기문화의 세례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단계로서는 제주도에 한 문화기로 설정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남한 지방에서 청동기시대 혹은 무문토기시대 전기 형식의 토기로 알려진 공렬토기 문화가 제주도에서는 원삼국기 직전까지 지속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용담동 남쪽 묘역과 광지패총 제2지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북쪽의 원삼국기 무덤이 잇대어 축조한 남쪽 묘역의 3기 석곽무덤(고인돌 하부구조일 가능성도 있음)에서 공렬토기, 골아가리토기 및 흑갈색 마연토기가 출토되고, 후자에서도 원삼국시대 광지 A식 토기문화 층 바로 아래에 역시 동일한 토기유물복합군이 출토된다.

또한 양 유적의 공렬토기, 골아가리토기군은 전형적인 예에서 벗어난 후기적인 것임은 그 자체의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1988년 발굴조사된 대정읍 상모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의해서 층위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상모리 유적은 4개의 지점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각 지점의 출토양상의 비교 결과, 초기에 가락동식토기(이중구연, 단사선)과 역삼동식토기군(공렬, 골아가리)의 속성이 복합된 토기군이 유입되어 그

복합 양상이 더욱 진전된 상모리식토기(이중구연, 단사선, 공렬, 골아가리)로 발전하다가 후기에는 복합형의 토기가 대폭 줄어들고, 순수 공렬, 골아가리 토기만이 잔존하는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모리 유적의 후기단계에 속하는 A지구 윗층과 D지구 패총의 토기에는 복합형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양상이 앞서 괘지패총과 용담동 묘역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아울러 태토 성분이나 두께 등의 제작수법이 괘지 A식 토기이면서, 골아가리 장식이 가해진 토기에가 한림읍 명월리, 제주시 용담동 고인돌, 서귀포시 강정동 등지에서 채집되어 제주도에서는 공렬토기문화가 원삼국기문화로 막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삼국시대 다음으로 한반도에서는 많은 유물을 부장한 큰 무덤이 출현하는 시기로서 삼국 고분기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직 그러한 큰 무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삼국시대 이후 제주도에 서 전개되는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로서 1984년 발굴의 괘지리 제3지구와 1986년 발굴의 괘지리 제4지구, 1988년 발굴의 괘지리 제6지구의 출토유물이 있다. 이 유적에서 삼국시대 이후의 도질토기로서 정선된 흙을 쓰고 1000도 이상의 고열을 내는 등요에서 환원염으로 구운 석기질의 토기가 적갈색토기와 함께 다량 출토되고 있다. 그 기형을 보면 신라 가야 지방에서 성행하는 고배형토기는 한점도 보이지 않고, 반구병과 돌대문의 큰 항아리, 목긴 병이 있으며, 무늬 장식으로는 변형된 음각 평행집선문이 있다.

이러한 기형과 장식문양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울릉도 천부동 석실무덤과 안압지에서 출토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편년되는 토기에 보이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괘지패총 3, 4지구의 토기유물복합군과 앞서 용담동 무덤, 괘지 2, 5지구에서 확인된 원삼국기 토기문화 사이에 끼어들어갈 유물복합군을 내는 유적이 찾아져야 되는데, 1984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서 그와 같은 유적이 찾아지지 못했다. 아니면, 원삼국기 괘지 A식 토기문화의 하한이 더욱 내려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현단계로서는 제주도에서 남한지방에서처럼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를 가를 수 없다. 한편 앞서 통일신라기 도질토기와 공반하는 괘지 3, 4지구 출토의 대부분의 토기는 적갈색을 띤 것으로 그 제작수법은 근본적으로 회전판을 쓴 흔적을 보이지 않은 무분토기 제작수법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괘지 A식토기보다는 태토의 정선도와 굵기가 발전하고 기형도 입지름과 바닥지름이 같은 개량 발전형으로 괘지 B식 토기라 이름을 붙였다. 결국은 원삼국시대 이후에도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적갈색 토기가 대량제작 사용된 것이 한반도와 다른 토기문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괘지 B식 토기문화의 편년에 대해서 앞서 통일신라시대 토기로 인정되는 도질토기가 그 한 기준이 되지만, 4지구에서 공반출토되는 철제 팽이형 도끼, 뿌리나래형 및 버들잎형 화살촉의 형식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또 다른 편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괘지 B식 토기문화의 상한과 하한의 폭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두루 걸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구체적인 편년에 대해서는 금후 주어진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원삼국시대 전후한 시대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한반도 남한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문화적 맥락 혹은 그 문화적 시기구분이 반드시 남한지방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아, 제주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적 변천과정과 시기구분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다.